금주의 법구-〈아함경〉
너 자신을 등불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삼고 의지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8월 2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15호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다보탑 난간 이탈… 강진에 聖寶 '휘청'

9월 12일 경주 5.8 강진
문화재 97건 피해 보고돼
불교문화재 피해는 33건

피해 보고 오류 · 사각 존재
기림사 소조불 불단 훼손 심각
보물 문화재 2차 피해 우려도

현장에선 복구 · 계측 한창
긴급복구비 23억 원 지원
세심한 모니터링 등 필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5.8의 지진으로 경주 인근 경상권 문화재 보존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국가지정 · 시도지정 · 문화재 자료 등을 포함한 문화재 97건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34%인 33건의 피해가 불교문화재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불국사 내 국보 제20호 다보탑의 난간석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석굴암은 입구에 낙석이 생겨, 9월 12일 밤사이 긴급 복구가 이뤄졌다. 국보 제312호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에는 마애불의 지반 침하와 요사채 지붕 기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주 인근 지역 사찰과 불교문화재도 피해가 속출했다. 양산 통도사는 대웅전과 극락보전에 균열이 생겼으며, 청도 운문사의 보물 제678호 삼층석탑은 상륜부가 탈락됐다. 군위 제2석굴암의 전각도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석남사는 담장 회벽에 균열과 전각 기와가 떨어졌으며, 경산 선본사도 전각의 기와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보물 제173호 울주 망해사지 승탑은 승탑 탑신부 옥개석에 일부 피해가 생겼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규모와 상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0일 본지가 경주 현장을 찾았을 당시 분황사 모전석탑은 지진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분황사 관계자는 "모전석탑 균열은 지진 전부터 있었다. 왜 지진 피해로 알려졌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며 "지진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적도 없었는데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분황사에 조사를 나온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 역시 "현재 분황사 모전석탑의 균열은 지진 전에 이미 있었던 균열이며 현재 새로 생긴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균열 확장 조사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분황사 모전석탑은 중점관리 대상이여서 현재 계측 중"이라고 전했다.



9월 20일 불국사 다보탑에 대한 정밀 계측을 실시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들. 뒤편의 점선 부분이 9월 12일 지진으로 탈락된 난간석이다. 경주 불국사=하성미 기자

불교문화재 지진 피해 상황

문화재명	종 별	피해내용
불국사	국보 제20호	다보탑(국보 20) 난간석 접합부 탈락
	보물 제1744호	대웅전(보물 1744) 지붕 및 담장 기와 일부 파손
	사적 제502호	대웅전 용마루 파손, 관음전 담장기와 일부 파손 서회랑 기와 일부 파손 등
석굴암	국보 제24호	일주문에서 석굴암 진입로 낙석
단석산마애불	국보 제199호	보호각 지지대 하부 균열
양산 통도사	국보 제290호	대웅전, 극락보전 등 일부 균열
경주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국보 제312호	마애불 지반침하, 요사채 지붕기와 파손
천군동 동·서 삼층 석탑	보물 제168호	동서탑 상륜부 파손
울주 망해사지 승탑	보물 제173호	승탑 탑신부 일부 피해(옥개석)
울주 석남사 승탑	보물 제369호	담장 회벽 균열 및 기와 탈락, 건물 기단부 균열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31호	요사채 균열, 대웅전 기와 일부 파손
표충사 삼층석탑	보물 제467호	담장, 사천왕문, 종무소, 수선당 기와 일부 파손
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보물 제514호	원통전 지붕파손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	보물 제539호	담장 균열, 숫마루장 2장 유실, 와구토 탈락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78호	동탑 옥륜부 이탈, 서탑 기움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보물 제805호	산신각 기와 10장 가량 탈락 후 파손
기림사 대적광전	보물 제833호	대적광전 벽체 일부 균열 발생
대비사 대웅전	보물 제834호	공양간 지붕 기와 일부 파손
운문사 대웅보전	보물 제835호	오백전, 전향각 외부담장 파손
청도 대적사 극락전	보물 제836호	요사채 지붕기와 파손
용명리 삼층석탑	보물 제908호	상단 탑신부 박리
신흥사 대광전	보물 제1120호	담장 3개소 일부 훼손
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188호	3층 탑신석 이격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1429호	동탑 옥개석 모서리 탈락
창림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867호	옥개석 일부 탈락
남산 염불사지 삼층석탑	사적 311호	삼층 탑신석 이완
금산 보리암	명승 제39호	극락전 하부 토사 유실 및 석축 붕괴 탐방로 계단 일부 유실, 탐방로 난간 파손

조계종 역시 지진 발생 직후부터 빠르게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74건의 사찰 피해를 문화재청에 알렸다. 또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주요 사찰 40여 곳에 대한 피해 조사와 진단도 진행했다.

이용윤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장은 "우선적으로 기와나 담장이 파손된 17곳의 사찰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2차 피해를 입었던 사찰의 전각, 담장, 벽체 훼손들 모두 복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불국사를 방문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은 피해상황을 보고 받으며 "이번 지진으로 인해 문화재 지진 피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100%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국보뿐만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까지도 정밀히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 하성미 기자

〈관련 해설 2면〉

현대인에게 희망 줄 간화선 대법회 열린다

오는 10월 15~25일, 대구 동화사서 개최

현대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선지식 초청 간화선 중흥 대법회가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된다.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정찬 현묵)와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이사장 의정)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대구 동화사에서 제2회 간화선 대법회를 개최한다.

간화선은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으로 마음수련, 명상 등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행법이 지닌 심신이완 뿐만 아니라 참나의 순수본성을 찾는 삼매 체험까지 가능하게 한다. 최근에는 불교학계 뿐만 아니라 심리학계에서도 이런 간화선의 심리치료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화선 대법회는 현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힐링법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조계사에서 열린 제1회 간화선 대법회에서는 9일간 1만 4000여 명이 참석해 법문을 경청한 바 있다.

이번 제2회 대법회에서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무여(축서사 선원장), 혜국(석종사 금봉선원장), 함주(법주사 총지선원 선덕), 지환(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현기(지리산 상무주암 수좌), 대원(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스님이 차례로 법사로 나선다.

한편 간화선대법회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의정, 효광)는 9월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사 취지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수좌회 공동대표인 정찬 스님은 간담회에서 "현재 간화선의 쇠퇴는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간화선대법회는 전 세계인의 정신세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간화선을 일반에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좌복지회 이사장 의정 스님은 "현재 초기불교와 티베트불교 수행이 전 세계 명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불교 수행의 정수인 정혜쌍수에는 미치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등
7인 선지식 나서 힐링법문
영어통역 등 세계화 모색도

못한다. 한국불교 간화선이 조만간 세계 명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스님들은 간화선이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보편적인 수행법임을 강조하며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간화선대법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각산 스님은 "간화선 법회는 미국에 있는 한국간화선자들의 도움을 받아 동시통역 또한 진행된다. 간화선이 조금 더 체계화 된다면 세계 어디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한류' 참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BBS불교방송, 영동지역 방송 송출

FM 104.3MHz…강릉 · 동해 · 삼척 가청권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영동지역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송출한다. 강릉, 동해, 삼척 등 영동지역 불자들은 FM 104.3MHz로 라디오 불교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BBS불교방송은 9월 11일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에서 강릉 BBS불교방송 개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을 비롯해 관음사 주지 무주 스님 등 지역사찰 스님들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영돈 강릉시의회 의장, 강희문 부의장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석했다.

BBS불교방송은 2002년 춘천지방사 개국에 이어 2012년 속초 · 양양 중계소를 건설했다. 이번 강릉방송국 개국은 올해 1월 월정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됐다.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지역 불자들의 열정이 개국을 이끌어 냈다. 사부대중이 축하할 날"이라고 말했다.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도 "강릉 불교방송 개국으로 영동과 영서를 아우르는 방송으로 거듭나게 된 만큼 강원도 전역에서 맑고 향기로운 자비의 연꽃을 피워나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어 선상신 사장은 "앞으로도 라디오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소를 확대해 라디오네크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